

두 개의 외연 이야기

— 중국어의 부사어, 경동사, 부가논항, 목적어 전치에서 보이는 증거(2)*

Wei-Tien Dylan Tsai(蔡維天) 著**

林姬炫 譯***

목차

- | | |
|------------------------|------------------|
| 3. 내부 피영향자 vs. 외부 피영향자 | 5.3 부사어 vs. 경동사 |
| 4. 내부 초점 vs. 외부 초점 | 5.4 피영향자 vs. 경동사 |
| 5. 내부와 외부 성분들에 대한 조망 | 5.5 초점 vs. 경동사 |
| 5.1 부사어 vs. 초점 | 5.6 부사어 vs. 피영향자 |
| 5.2 피영향자 vs. 초점 | 6. 맺음말 |

* Tsai, W.-T. Dylan(2015), "A Tale of Two Peripheries: Evidence from Chines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Object Fronting". In *The Cartography of Chinese Syntax: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11, edited by W.-T. Dylan Tsai, 1-3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역주] 본고는 원저자와 옥스퍼드대학출판사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 번역을 진행하였다. Tsai(2015)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본고는 그 중 3-6장을 번역한 것이다. 원문의 전반부에서는 0. 서론, 1. 내부/외부 부사어, 2. 내부/외부 경동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번역문은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4집에 수록되어 있다.

** 臺灣 國立清華大學 語言學研究所 教授

*** 송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국문제요

본고는 Dylan Tsai(2015)의 후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Tsai의 연구성과는 중국어 기능성분의 지형도를 통해 중국어 문법 구축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Tsai(2015)에서는 중국어의 기능성분은 경동사구 외연과 좌측 외연이라는 두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통사-의미 접합면에서 각각 동반성과 인과성에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의문/재귀 부사어, 경동사, 부가논항, 목적어 전치 등 중국어 및 언어 교차적인 다양한 사례들은 내부-외부 이분법의 존재에 강력한 입증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형학적인 접근법에 기초하여 통사-의미의 사상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심어: 경동사구 외연, 좌측 외연, 내부-외부 이분법, 의문/재귀 부사어, 경동사, 부가논항, 초점

3. 내부 피영향자 vs. 외부 피영향자¹⁾

중국어 피영향자(affective)의 해석에도 내부-외부 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작업은 본고의 논의에 도움이 된다(Tsai(2012) 참조). (34a)는 전형적인 외부 피영향자 해석을 보여주는데, 이는 부가논항(applicative) 투사의 핵 ‘給(~에게)’를 표지로 수반하며, 좌측 외연에 출현하리라 추정된다.

1) 본고의 예문 주석에 사용된 축약어는 다음과 같다. 1S(first person singular, 1인칭 단수), 3S(third person singular, 3인칭 단수), Acc(accusative case, 대격), Aff(affective marker, 피영향자 표지), ApplP(applicative phrase, 부가논항구), AV(actor voice, 능동태), Cl(classifier, 양사), Dat(dative case, 여격), Eth.dat(ethic dative, 심성적 여격), EvaP(evaluative phrase, 평가구), Foc(focus marker, 초점표지), FP(focus phrase, 초점구), Inc(inchoative aspect, 기동상), IntP(interrogative phrase, 의문사구), Lnk(linker, 연결사), Nom(nominative case, 주격), Obl(oblique case, 사격), Past(past tense, 과

- (34) a. 他居然(給我)喝了三瓶酒! [외부 피영향자]
 ([직역] 그가 뜻밖에도 나에게 술 세 병을 마시다니!
 →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그가 뜻밖에 술 세 병을 마시다니!)
 b. 他居然喝了我三瓶酒! [내부 피영향자]
 ([직역] 그가 뜻밖에도 나에게 술 세 병을 마시다니!
 → 그가 뜻밖에도 나에게서/내가 소유하고 있던 술 세 병을 마시다니!)²⁾

반면 (34b)의 내부 피영향자는 피영향주(Affectee) '我(나)'와 객체(Theme) '三瓶酒(술 세 병)' 사이에 직접적인 소유관계(possession)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 이중목적어 구문(pseudo-double object construction: pseudo-DOC)의 형식으로 출현한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두 유형의 피영향자 해석 사이에는 진리치 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집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환자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는 (34b)가 아니라 (34a)처럼 발언할 것이다. 사실 중국어에서 내부 피영향자 해석은 두 목적어(즉, 피영향주 '我(나)'와 객체 '三瓶酒(술 세 병)') 사이에 정적인 소유관계(static possession)를 요구한다. 이는 영어에서 'Mary baked Bill a cake.(매리는 빌에게 케이크를 구워주었다.)'와 같은 '결과적 소유관계(to-the-possession-of)' 해석이 전형적으로 하층 부가논항(low applicatives)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룬다.³⁾

거시제), Prf(perfective aspect, 완료상), Q(question particle, 의문조사), Rea (realis mood, 현실서법), Res(resultative aspect, 결과상), Top(topic marker, 주제표지).

[역주] 이 주석은 원문의 전반부에 제시되어 있으나, 후반부의 예문과 서술에도 동일한 축약어가 출현하므로 참고를 위해 중복하였다.

2) [역주] 예문 (34)의 외부/내부 피영향자는 '그가 술 세 병을 마신 사건'이 피영향주 '我(나)'에게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이에 더하여 내부 피영향자는 '정적인 소유관계(아래 [역주3] 참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나에게'로 직역했을 때의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고려하여, 이후 예문의 번역에서 외부 피영향자는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로, 내부 피영향자는 '나에게서'로 풀어서 표현하기로 한다.

화용적인 측면에서, 중국어 외부 피영향자는 엄격하게 화자 지향적(speaker-oriented)이다. (35a)의 비문법성은 외부 피영향자가 오직 1인칭 단수 대명사로서 화자를 지향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35b)의 적합성을 통해 증명되듯이, (34b)의 내부 피영향자에서는 이 제약이 관찰되지 않는다.

- (35) a. *他居然[給我們/你/你們/他/他們]喝了三瓶酒!
 b. 他居然喝了[我們/你/你們/他/他們]三瓶酒!
 (그가 뜻밖에도 [우리/너/너희들/그/그들]에게서 술 세 병을 마시다니!)

더 나아가 (36a)와 같은 진술문에서 외부 피영향자를 사용하면 매우 어색한 반면,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유사 이중목적어 구문에 출현하는 내부 피영향자는 온전히 적합하다. (36b)의 적법성은 이러한 차이를 예증해준다.

- (36) a. ??他昨天[給我]喝了三瓶酒。 [진술문]
 (??그는 어제 [나에게 불리/유리하게도] 술 세 병을 마셨다.)
 b. 他昨天喝了**我**三瓶酒。 [진술문]
 (그는 어제 나에게서 술 세 병을 마셨다.)

언어교차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로만스어(Roman language)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어의 이른바 심성적 여격(ethical datives)은 중국어 외부 피영향자

3) [역주] 영어의 'Mary baked Bill a cake.(매리는 빌에게 케이크를 구워주었다.)'에서 주체인 'Mary(매리)'의 굽는 행위 결과 피영향주 'Bill(빌)'은 객체인 'cake(케이크)'를 받아 소유하게 된다. 반면 중국어의 (34b)에서 내부 피영향주 '我(나)'는 주체인 '他(그)'가 마시는 동작 결과 객체 '三瓶酒(술 세 병)'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三瓶酒(술 세 병)'의 원천/출처(Source)로 작용한다. 이처럼 피영향주와 객체 사이에 동작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유관계를 '결과적 소유관계'로, 동작 이전의 잠재적인 소유관계를 '정적인 소유관계'로 번역하였다.

한편, Tsai(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부 피영향주와 객체 사이에 정적인 소유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他居然喝了**我**三瓶趙家的酒!(그가 뜻밖에도 나에게 조씨네 술 세 병을 마시다니!)'에서 객체의 실질적인 원천/출처는 '趙家(조씨네)'로, 피영향주 '我(나)'는 전체 동작의 영향을 받을 뿐 객체와의 사이에 어떠한 소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여준다(대표적으로 Perlmutter(1971), Jaeggli(1982), Cuervo(2003), Michelioudakis and Sitaridou(2008) 참조).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격 접어(dative clitic)의 상층 부가논항(high applicative) 용법 또한 화자/청자 지향 제약을 받으며, 이는 전형적으로 개체(individual)와 사건(event) 사이에 모종의 피영향성을 나타낸다.

- (37) mu/ su/ ?tu arostise iMaria.
 me/ you/ ?him fell.ill Maria
 ([직역] 마리아가 나/너/?그에게 아팠다.
 → 마리아가 아프다는 사건이 나/너/?그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38a)와 (38b)의 대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대 그리스어의 심성적 여격 또한 명령(imperative), 기원(optative), 가정(subjunctive), 부정(negative)의 서법(mood)을 요구한다.

- (38) a. na mu prosechis! [명령문]
 Subj Eth.dat.1S take.care
 ((나를 위해서) 조심해!)
- b. ??mu prosechis. [??진술문]
 Eth.dat.1S take.care
 (??(나를 위해서) 조심하다.)

이는 앞서 (36a)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외부 피영향자가 진술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Kikushima(2013)은 일본어 전이동사(transference verb) ‘kureru(くれる, 주다)’가 중국어의 보문소구와 관련된 상층 부가논항과 유사한 환경에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부가논항 형태소는 주요 동사 ‘okuru(送る, 보내다)’에 부착되어 대략적으로 ‘(나에게) 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결과적 해석은 (39a)처럼 수혜자(benefactive)일 수도 있고, (39b)처럼 피해자(adversative)일 수도 있다.⁴⁾

4) [역주] (39-43)의 일본어 예문과 그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어 원어표기는 역자가 추

- (39) 太郎が 花子に 荷物を 送ってくれた。
 Taroo-ga Hanako-ni nimotu-o okutte-kure-ta.
 Taroo-Nom Hanako-Dat package-Acc send-KURERU-Past
 a. (나에게 유리하게) 타로가 하나코에게 짐을 보내주었다.
 b. (나에게 불리하게) 타로가 하나코에게 짐을 보내주었다.

이러한 직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인칭 여격 피영향주(dative Affectee)를 구체화하고, 감탄의 말힘(force)을 수반하는 평가부사 ‘odoroitakotoni(驚いたことに, 놀랍게도)’를 덧붙여보기로 하자. 예문 (40b)는 그 해석이 중국어 외부 피영향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40) 驚いたことに 花子が 私に 指輪を
 odoroitakotoni Hanako-ga watasi-ni yubiwa-o
 surprisingly Hanako-Nom I-Dat ring-Acc
 買ってくれた!
 katte-kure-ta!
 buy-KURERU-Past
 a. 놀랍게도 하나코가 나에게 (유리하게) 반지를 사주다니!
 b. 놀랍게도 하나코가 나에게 (불리하게) 반지를 사주다니!

통사적 분포 측면에서, Kikushima(2013)에서는 ‘kureru(くれる, 주다)’는 항상 ‘yaru(やる[遣る], 보내다)’, ‘morau(もらう[貰う], 받다)’ 등 다른 전이동사를 그 작용역에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각각 (41)과 (42)에 예시되어 있다.

- (41) 医者が 太郎を 助けてやってくれた。
 isya-ga Taroo-o tasukete-yatte-kure-ta.
 doctor-Nom Taroo-Acc help-give-KURERU-Past
 a. (나에게 유리하게) 의사가 타로를 도와주었다.
 b. (나에게 불리하게) 의사가 타로를 도와주었다.

가한 것이다. 한편, 예문 (39-43)을 다수의 일본어 모국어 화자에게 검증한 결과, 일부 예문의 해석과 합법도 판단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본고는 Tsai(2015)의 원문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로 한다.

- (42) 太郎が 医者に 助けてもらってくれた。
 Taroo-ga isya-ni tasukete-moratte-kure-ta
 Taroo-Nom doctor-Dat help-receive-KURERU-Past
 a. (나에게 유리하게) 타로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주었다.
 b. (나에게 불리하게) 타로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주었다.

이를 다음 예문과 대조해 보면, (43a)에서 'kureru(くれる, 주다)'와 'yaru(やる[遣る], 보내다), (43b)에서 'kureru(くれる, 주다)'와 'morau(もらう[貰う], 받다)'는 서로 어순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 (43) a. *医者が 太郎を 助けてくれてやった。
 *isya-ga Taroo-o tasukete-kurete-yat-ta.
 doctor-Nom Taroo-Acc help-KURERU-give-Past
 b. *医者か 太郎を 助けてくれてもらった。
 *isya-ga Taroo-o tasukete-kurete-morat-ta.
 doctor-Nom Taroo-Acc help-KURERU-receive-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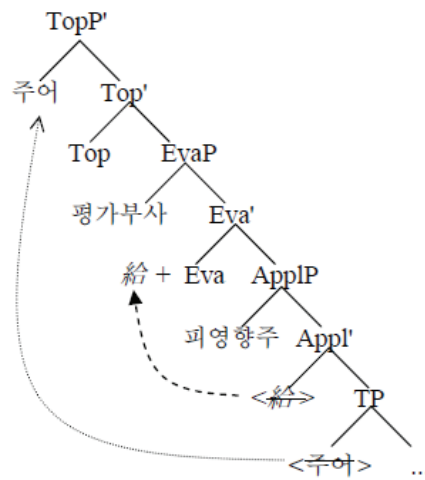
거울원리(mirror principle)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어순은 'kureru(くれる, 주다)'가 다른 동사성 성분보다 상층부에 위치하며, 아마도 중국어 외부 피영향자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리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⁵⁾

따라서 외부 피영향자는 동사구 층위(VP layer)가 아니라 보문소구 층위(CP layer)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내부 피영향자와 차이를 보인다는 합리적인 제안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36a)의 피영향자 표지 '給(~에게)'가 좌측 외연의 상층 부가논항투사의 핵으로서 문제의 1인칭 피영향주를 수반한다고 설정하였다. 이어서 이 상층 부가논항투사의 핵은 평가구(evaluative phrase: EvalP)로 인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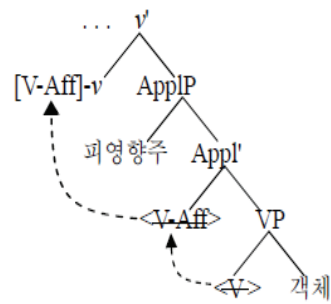
5) [역주] Baker(1985)에서 제시한 거울원리는 형태론적 도출과 통사적 도출 사이에 직접적인 상응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거울원리란 선행어(head-initial language)에서 투사구조의 배열순서가 후핵어(head-final language)에서는 거울에 반사되듯 대칭적으로 배열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영어와 중국어의 기능투사가 좌측 외연에 배열된 순서가 일본어에서는 우측 외연에서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Baker(1985)의 거울원리는 Baker, Mark. 1985. "The Mirror Principle and Morphosyntactic Explanation". *Linguistic Inquiry* 16(3): 373-415을 참조.

고, 한정사구(determiner phrase: DP) 주어는 문장 첫머리 위치로 주체화(topicalize)된다. 이와 관련된 도출과정은 다음 수형도 (44)로 도식화할 수 있다.⁶⁾

(44)



(45)



반면, 내부 피영향자는 함축적인 부가논항의 핵 'Aff'와 관련된다. (36b)와 같은 유사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동사 'V'가 부가논항의 핵 'Aff'로 부가된 후에 [V-Aff] 복합체는 피영향주와 객체 사이의 정적인 소유관계를 매개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5)와 같이 경동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위치한 '중층(middle)' 부가논항투사의 지정어(specifier: Spec) 위치에 피영향주 논항을 자리매김 하였다.⁷⁾

6) [역주] 앞선 예문 (34-36)의 대조에서 외부 피영향주는 화자 지향적인 감탄의 문맥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외연 해석은 보문소구 층위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給(~에게)'의 평가구로의 추가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7) [역주] (45)의 수형도에서 경동사구는 음성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함축적인 피영향자 경동사 'AFF'를 핵으로 취하므로, [V-Aff] 복합체의 경동사구로의 인상은 필수적

4. 내부 초점 vs. 외부 초점

본고의 마지막 사례는 중국어 목적어 전치(object fronting)에 보이는 흥미로운 특정성 효과(specificity effects)와 관련되는데, 이는 두 가지 외연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보다 심화된 증거를 제시해 준다. 중국어에서는 술어 앞 두 가지 초점 위치를 구분하는 경계표지로서 미래 부사어 ‘明天(내일)’을 활용할 수 있다(Tsai(2008b) 참조). 다음 대조초점 구문(contrastive focus construction)에 예시된 바와 같이, 목적어가 ‘明天(내일)’과 주요술어 사이로 전치되면 (46a)처럼 한정적(definite)이거나, (46b)처럼 비특정적(nonspecific)으로 해석된다.⁸⁾

- (46) 我們明天豬肉吃, 牛肉不吃。 [내부 초점]
 a. 우리는 내일 (그) 돼지고기는 먹지만, (그)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다.
 b. 우리는 내일 돼지고기는 먹지만,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다.

미래 부사어는 굴절소 층위(IP layer)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목적어는 경동사구 외연부, 특히 내부 초점구(inner focus phrase: FocP_{내부})의 지정어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만약 목적어가 ‘明天(내일)’보다 더 높은 위치로 인상된다면, (47b)처럼 비특정적 해석은 차단되고

이다. 덧붙여, 내부 피영향자는 정적인 소유관계를 지니고 피동문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하층 부가논항에 투사되는 수혜자와 구분된다. 이에 대한 세부 논의는 Tsai(2012)을 참조.

- 8) [역주] 한정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적 전제(existential presupposition)가 공유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며, 특정성은 화자가 지시대상의 정체성을 확인 가능한지의 여부(identifiability)와 관련된 개념이다.

한편, 정보구조에서 주제는 담화 맥락에서 이전 발화와의 연결 고리에 해당하는 구정보로 기능하고, 초점은 이 연결 고리에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주는 기능을 한다. 무표적 상황에서 중국어의 구정보는 문두에, 신정보는 문말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각각 담화주제(discourse topic)와 정보초점(information focus)이라고 지칭한다(이에 대한 예문은 (54c)와 (70)을 참조). 이와 독립적으로, 담화 맥락에서 하나 이상의 잠재적 주제/초점이 존재할 경우, 선택된 주제/초점과 나머지 잠재적 주제/초점 사이에는 대조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대조 주제/초점이라고 한다.

(47a)처럼 한정적 해석만 남게 된다.

- (47) 我們**豬肉**明天吃, **牛肉**後天吃。 [외부 초점]
 a. 우리는 (그) **돼지고기**는 내일 먹지만, (그) **쇠고기**는 모레 먹을 것이다.
 b. #우리는 **돼지고기**는 내일 먹지만, **쇠고기**는 모레 먹을 것이다.

이는 문제의 전치된 목적어가 미래 부사어 앞 위치, 즉 좌측 외연의 외부 초점구의 지정어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일종의 주제성(topicality)을 획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본고의 관찰은 수량명사구(numeral NP)도 특정적이거나 한정적일 때만 목적어 전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보다 견고해진다. 이러한 제약은 다음의 대조에 예시되어 있다. (48a)에서 수량명사구 ‘兩塊豬肉(돼지고기 두 덩어리)’는 미래 부사어 바로 아래 위치로 인상되어 비특정적으로 해석된다.⁹⁾ 이와 대조적으로, 원형명사구(bare NP)와 달리 수량명사구는 비특정 외에 다르게 해석될 수 없으므로, (48b)처럼 미래부사어 앞으로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 (48) a. 我們**明天兩塊豬肉**放冰箱, **三塊豬肉**放廚房。
 (우리는 **내일 돼지고기 두 덩어리**는 냉장고에 두고, **돼지고기 세 덩어리**는 주방에 둘 것이다.)
 b. *我們**兩塊豬肉明天**放冰箱, **三塊豬肉**放廚房。

한편, (49a)처럼 지시사 ‘這(이)’를 더하거나, (49b)처럼 일종의 부분(partitive) 해석을 초래하는 존재양상(existential modal) ‘有(어떤)’를 덧붙임으로써 외부 초점 해석을 구제할 수 있다.

- (49) a. 我們**這兩塊豬肉**明天放冰箱, **那三塊**放廚房。
 (우리는 **이 돼지고기 두 덩어리**는 **내일** 냉장고에 두고, **저 세 덩어리**는 주방에 둘 것이다.)

9) [역주] 원문의 (48a) 설명에서 ‘兩本書(책 두 권)’는 ‘兩塊豬肉(돼지고기 두 덩어리)’의 오자로 보여 바로잡았다.

- b. 我們有兩塊豬肉明天放冰箱, 有三塊豬肉放廚房。
 (우리는 어떤 돼지고기 두 덩어리는 내일 냉장고에 두고, 어떤 돼지고기 세 덩어리는 주방에 둘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의미적 차이 외에, 중국어 초점에 대한 본고의 구분을 통사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 (Cinque(1990)을 비롯한) 선행연구에서는 오직 기저생성된 주제(base-generated topic)만이 잉여대명사 전략(resumptive pronoun strategy)을 통해 좌향 전위(left dislocation)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도 이와 온전히 동일한 방식을 보인다. (50a,b)의 대조를 통해 증명되듯이, 전형적인 주제는 제자리에서 결속된 대명사와 연계될 수 있지만, 전치된 목적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 (50) a. 阿Q_k 啊, 我很討厭(他_k)。
 (阿Q_k는 내가 (그_k를) 미워한다.)
 b. 我阿Q_k 討厭(*他_k), 小D_j 不討厭(*他_j)。¹⁰⁾
 (나는 阿Q_k는 (*그_k를) 미워하지만, 小D_j는 (*그_j를) 미워하지 않는다.)

본고의 내부-외부 이분법에 잉여대명사 검증법을 적용시켜 보면, 이는 (51a)처럼 오직 미래 부사어 ‘明天(내일)’ 앞으로 인상된 목적어에만 유효하며, (51b)처럼 ‘明天(내일)’ 뒤로 목적어가 전치될 때는 이러한 해석이 차단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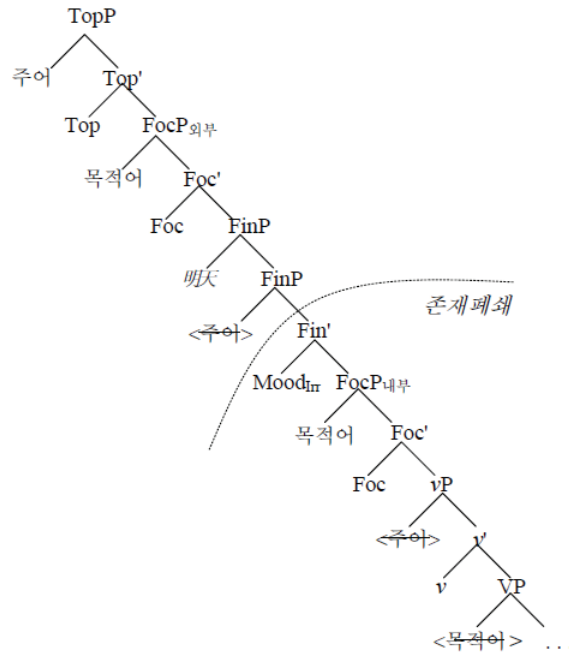
- (51) a. 我阿Q_i 明天見得到(他_i), 小D_k 就見不到(他_k)了。 [외부 초점]
 (나는 阿Q_i는 내일 (그_i를) 만나볼 수 있지만, 小D_k는 (그_k를) 만나볼 수 없다.)
 b. 我明天阿Q_i 見得到(*他_i), 小D_k 就見不到(*他_k)了。 [내부 초점]
 (나는 내일 阿Q_i는 (*그_i를) 만나볼 수 있지만, 小D_k는 (그_k를) 만나볼 수 없다.)¹¹⁾

10) [역주] 원문에는 (50b)의 초점 해석으로 ‘阿Q’와 ‘小D’를 대문자로 표시하였으나, (46-50)의 초점 표시 방식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번역문에서는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11) [역주] (51b)에 대한 원문의 “I hate AKIU, but not XIAODI.”라는 해석은 (50b)

이상의 모든 사실은 외부 초점 위치로 전치된 목적어는 실제로는 (초점주제 (focus topic)라고도 알려진)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로서, 본질적으로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¹²⁾ 이와 달리, 내부 초점은 (미래 부사어를 수용하는) 정형절구(finite phrase: FinP)와 (주요 술어를 핵으로 하는) 동사구 사이에서 발견되며, 경동사구 외연에서 내부 초점구의 지정어에 위치하리라 추정된다.

(52) 내부-외부 초점의 지형도(무관한 세부 투사는 생략함)



의 해석을 잘못 중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국어 예문에 기초하여 수정 번역하였다.

12) [역주] 담화 맥락에서 주제와 초점은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상대적인 정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인 명사구는 모두 지시적인 구정보로 기능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정적/특정적 해석을 수반하는 전치된 목적어를 '주제'의 일종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형도에서 두 종류 중국어 초점의 의미적 구분을 도출해 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한 가지 방법은, 함축적인 비현실서법(irrealis mood: Mood_{irr})과 연계된 존재 운용자(existential operator)를 가정하여, 내부 초점 위치에서 비특정/비한정 해석을 인가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부 초점은 단지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출현하므로, 문제의 한정성/특정성 효과를 보이게 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존재폐쇄(existential closure: 즉, 핵심 작용역(nuclear scope))의 범위가 동사구와 연계(Diesing(1992) 참조)된 것이 아니라 통사적 술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는 Tsai(2001)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47)과 (48b)의 사례에서, 통사적 술어는 논리형식(Logical Form: LF)에서 동사를 비현실서법의 핵 'Mood_{irr}'로 인상함으로써 형성된다. 그 결과, 외부 초점 위치의 비한정어는 존재폐쇄를 벗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유표적(marked)' 방식으로 인가되어야만 한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46)과 (48a)의 내부 초점은 자동적으로(default) 존재양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본고의 예상대로 비특정적 해석을 얻게 된다.¹³⁾

13) [역주] 명사구의 비한정적/비특정적 해석은 존재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식의 미론에서 문장의 의미구조는 운용자, 제한자(restrictor), 핵심작용역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Heim(1983)은 비한정 명사구는 일종의 자유변항(free variable)으로서 비선택적 양화사(unselective quantifier)에 의해 결속되거나, 핵심작용역으로 구현되는 존재폐쇄 범위 안에서 인가된다고 하였다. 중국어의 외부/내부 초점은 시간부사를 기점으로 구분되고 내부 초점만 비한정적/비특정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존재운용자를 설정할 경우 그 위치는 정형절구가 될 것이다. 또한 Tsai(2001)의 확대된 사상가설(Extended Mapping Hypothesis)에서 '可以, 能, 應該' 등 양상조동사가 동사인상을 통한 술어의 범위 확장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심작용역의 임계범위인 존재폐쇄 또한 정형절구 위치로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보다 상층부에 출현한 외부 초점은 (49b)처럼 유표적 존재양상 '有'를 통해서만 존재양화의 비한정적/비특정적 해석이 허용된다.

5. 내부와 외부 성분들에 대한 조망

5.1 부사어 vs. 초점

전체적인 구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내부성분(inside)’과 ‘외부성분(outside)’을 최종 단계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상 결과는 다음의 지형도와 같을 것이다.

- (53) 주제구(TopP) > 의문사구(IntP) > 평가구(EvaP) > 상층 부가논항구(AppIP_{high}) > 외부 초점구(FP_{outer}) > 외부 경동사구(vP_{outer}) > 시간사구(TP) > 내부 초점구(FP_{inner}) > 내부 경동사구(vP_{inner}) > 중층 부가논항구(AppIP_{mid}) > 동사구(VP)

이제 각각의 성분들이 공기할 때의 어순배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본고에서는 중국어 외부 ‘怎麼(왜)’를 주제와 초점 사이에 위치시켰다. 왜냐하면 이는 (54a,b)처럼 내부/외부 초점보다 모두 높이 투사되지만, (54c)처럼 (담화)주제보다는 낮게 투사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내부 ‘怎麼(어떻게)’는 (54d)의 내부 초점이나 (54e)의 외부 초점보다 모두 낮은 위치에 투사된다.

- (54) a. 阿Q怎麼明天猪肉吃, 牛肉不吃呢? [외부 ‘怎麼’ > 내부 초점]
(阿Q는 왜 내일 돼지고기는 먹고 쇠고기는 안먹나요?)
b. 阿Q怎麼猪肉明天吃, 牛肉後天吃呢? [외부 ‘怎麼’ > 외부 초점]
(阿Q는 왜 돼지고기는 내일 먹고 쇠고기는 모레 먹나요?)
c. 猪肉啊, 阿Q怎麼明天吃呢? [주제 > 외부 ‘怎麼’]
(돼지고기는, 阿Q가 왜 내일 먹나요?)
d. 阿Q明天猪肉怎麼吃, 牛肉又怎麼吃? [내부 초점 > 내부 ‘怎麼’]
(阿Q는 내일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고, 쇠고기는 또 어떻게 먹나요?)
e. 猪肉阿Q明天怎麼吃, 牛肉後天又怎麼吃? [외부 초점 > 내부 ‘怎麼’]
(돼지고기는 阿Q가 내일 어떻게 먹고, 쇠고기는 모레 또 어떻게 먹나요?)

더 나아가, 외부 ‘怎麼(왜)’와 유사하게, 외부 ‘自己(스스로/자발적으로)’ 또한 (55a,b)처럼 내부/외부 초점보다는 높지만 (55c)처럼 (담화)주제보다는 낮은 위

치에 출현한다.

- (55) a. 阿Q是**自己**猪肉吃, 牛肉不吃的。 [외부 ‘自己’ > 내부 초점]
 (阿Q는 스스로 돼지고기는 먹었고 쇠고기는 먹지 않았다.)
 b. 阿Q是**自己**猪肉明天吃, 牛肉后天吃的。 [외부 ‘自己’ > 외부 초점]
 (阿Q는 스스로 돼지고기는 내일 먹을 것이고, 쇠고기는 모레 먹을 것이다.)
 c. 猪肉啊, 阿Q是**自己**明天吃, 后天不吃的。 [주제 > 외부 ‘自己’¹⁴⁾]
 (돼지고기는 阿Q가 스스로 내일 먹고 모레 먹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부 ‘自己(혼자서/직접)’ 또한 내부 ‘怎麼(어떻게)’와 동일하게 (56a)의 내부 초점이나 (56b)의 외부 초점보다 아래 출현한다.

- (56) a. 阿Q明天猪肉**自己**吃, 牛肉分别人吃。 [내부 초점 > 내부 ‘自己’]
 (阿Q는 내일 돼지고기는 혼자 먹고, 쇠고기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것이다.)
 b. 阿Q猪肉明天**自己**吃, 牛肉分别人吃。 [외부 초점 > 내부 ‘自己’]
 (阿Q는 돼지고기는 내일 혼자 먹고, 쇠고기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것이다.)

5.2 피영향자 vs. 초점

중국어 상층 부가논항에 대해 살펴보면, 외부 부가논항은 좌측 외연에서 화자지향적인 해석을 지닌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확실히 내부/외부 초점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 (57) a. 阿Q居然**給我**猪肉吃, 牛肉不吃。 [외부 피영향자 > 내부 초점]
 (阿Q는 뜻밖에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돼지고기는 먹지만 쇠고기는 먹지 않는다.)
 b. 阿Q居然**給我**猪肉明天吃, 牛肉后天吃。 [외부 피영향자 > 외부 초점]
 (阿Q는 뜻밖에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돼지고기는 내일 먹지만 쇠고기는 모레 먹을 것이다.)

14) [역주] 원문의 외부 ‘초점’은 외부 ‘自己’의 오자로 판단되어 번역문에서 수정하였다.

(58a,b)의 대조초점 해석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목적어를 외부 피영향자 왼쪽으로 더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⁵⁾ 이에 비하여 (58c)의 예시는 외부 피영향자 앞에 주제를 배치하는 것은 온전히 문법적임을 보여준다.

- (58) a. *阿Q居然**猪肉給我**明天吃, **牛肉給我**後天吃。 [*외부 초점 > 외부 피영향자]
 b. *阿Q**猪肉**居然**給我**明天吃, **牛肉給我**後天吃。 [*외부 초점 > 외부 피영향자]
 c. **猪肉**啊, 阿Q居然**給我**明天吃。 [주제 > 외부 피영향자]
 (돼지고기는, 阿Q가 뜻밖에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내일 먹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일한 검증법을 유사 이중목적어 구문에 적용시켜 보면, 내부/외부 초점 모두 내부 피영향자보다 위쪽에 출현한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진다. (59a)에서 전치된 목적어 ‘猪肉(돼지고기)’와 ‘牛肉(쇠고기)’는 피영향자 목적어 ‘我(나)’보다 높이 출현한다. 또한 (59b)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들 목적어를 시간 부사어 ‘昨天(어제)’보다 더 위쪽으로 인상하면, 보다 더 상층부인 외부 초점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 (59) a. 阿Q**昨天猪肉**吃了**我**三斤, **牛肉**吃了**我**四斤。 [내부 초점 > 내부 피영향자]
 (阿Q는 어제 **돼지고기**는 **나에게서** 세 근을 먹었고, **쇠고기**는 **나에게서** 네 근을 먹었다.)
 b. 阿Q**猪肉****昨天**吃了**我**三斤, **牛肉**吃了**我**四斤。 [외부 초점 > 내부 피영향자]
 (阿Q는 **돼지고기**는 어제 **나에게서** 세 근을 먹었고, **쇠고기**는 **나에게서** 네 근을 먹었다.)

5.3 부사어 vs. 경동사

경동사의 위치는 어떠할까? 중국어 외부 ‘怎麼(왜)’는 (주요 동사를 유인(attract)하는) 외부 경동사 ‘CAUSE’보다 상층부에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되었

15) [역주] 원문에는 외부 피영향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왼쪽’의 오류로 보여 번역문에서 수정하였다.

다. 즉, (60a,b)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怎麼’는 도구보다는 원인으로 해석 되는데 이는 ‘怎麼’가 외부 의문부사어라는 증거표지이다. 또한 (61)에 예증된 바와 같이, ‘怎麼(왜)’는 외부 경동사보다 아래에 출현할 수 없다.

- (60) 那把刀**怎麼** [切得]+CAUSE 你直冒汗呢? [외부 ‘怎麼’] 외부 경동사
 a. [직역] 저 칼은 **왜** 잘라서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땀을 흘리게 하나
 요? [원인]
 b. #[직역] 저 칼은 **어떻게** 잘라서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땀을 흘리게
 하나요? [#도구]
- (61) *那把刀 [切得]+CAUSE **怎麼**你直冒汗呢?

이와 대조적으로, ‘怎麼’가 (주요 동사를 유인하는) 내부 경동사 ‘USE’ 앞에 놓 이면, 원인이나 도구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62a,b)의 중의성은 이를 예증해준다.

- (62) 阿Q**怎麼** [切]+USE 那把刀呢?
 a. 阿Q는 **왜** 저 칼로 자르나요? [원인]
 b. 阿Q는 **어떻게** 저 칼로 자르나요? [도구]

마찬가지로, 외부 ‘自己(스스로/자발적으로)’ 또한 좌측 외연에서 외부 경동사보 다 높은 위치에서 발견된다. (63b)에서 반(反) 동반격 해석이 부재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내부 ‘自己(혼자서/직접)’는 ‘CAUSE’ 앞에 출현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63a)의 반(反) 원인격/사동주 해석은 비록 화용적으로 다소 어색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허용된다.¹⁶⁾

- (63) 那把刀**自己** [切得]+CAUSE 他很疼。 [외부 ‘自己’] 외부 경동사
 a. [직역]_?저 칼은 **저절로** 잘라서 그로 하여금 아프게 했다.
 [_?반 원인격/사동주]
 b. #[직역] 저 칼은 **혼자서** 잘라서 그로 하여금 아프게 했다.
 [#반 동반격]

16) [역주] 화용적인 어색함이란 무생물인 ‘칼’이 의지를 지니고 ‘스스로/자발적으로’ 동작 을 행할 수 없기 때문으로, 만약 자동으로 작동되는 절단기를 사용하는 상황 등을 가 정해 본다면 (63a)의 문법성은 다소 완화된다.

또한 (64)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내부 ‘自己(혼자서/직접)’는 ‘CAUSE’ 뒤에도 출현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마도 이 특정 구문에는 경동사구 외연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64) *那把刀 [切得]+CAUSE 自己我直冒汗。

내부 ‘自己(혼자서/직접)’와 외부 ‘自己(스스로/자발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의문사구와 마찬가지로 내부 경동사 앞에 출현한다. 아래 예문에서 ‘USE’ 앞에 출현하는 재귀부사어의 해석은 반(反) 원인격/사동주와 반(反) 동반격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65) 阿Q是自己 [切]+USE 那把刀的。

- a. 阿Q는 스스로 그 칼로 자른 것이다. [반 원인격/사동주]
b. 阿Q는 혼자서 그 칼로 자른 것이다. [반 동반격]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외부 부사어는 외부 경동사 위쪽에만 출현할 수 있는데 비하여, 내부 부사어는 내부 경동사와 외부 경동사 사이에 위치한다. 이로써 내부 및 외부와 관련된 모든 성분의 포괄적 지형도를 사상해 내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5.4 피영향자 vs. 경동사

이제 어떻게 중국어 피영향자와 경동사가 어우러지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외부 피영향자는 외부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내부/외부 경동사 모두에 선행한다. 이는 (66a,b)에 명시되어 있다.¹⁷⁾

(66) a. 那把刀居然給我 [切得]+CAUSE 小D直冒汗。

[외부 피영향자 > 외부 경동사]

17) [역주] 원문 5.4부터 예문의 일련번호에 착오가 발생하여, 번역문에서 예문과 그에 대한 본문 설명의 예문번호를 수정하였다.

- ((직역) 그 칼은 뜻밖에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잘라서 小D로 하여금 줄곧 땀을 흘리게 했다.)
- b. 阿Q居然給我 [切]+USE 那把刀。 [외부 피영향자 > 내부 경동사]
 ((직역) 阿Q는 뜻밖에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그 칼로 잘랐다.)

이와 반대로, 비록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67a,b)와 같이 내부/외부 경동사 모두 유사 이중목적어 구문의 내부 피영향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견된다.¹⁸⁾

- (67) a. 那把刀切得我切掉了自己一根手指頭。 [외부 경동사 > 내부 피영향자]
 ((직역) 그 칼은 잘라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서 손가락 하나를 잘려나가게 했다.)
- b. 阿Q切那把刀切掉了自己一根手指頭。 [내부 경동사 > 내부 피영향자]
 ((직역) 阿Q는 그 칼로 잘라서 그 자신에게서 손가락 하나를 잘려나가게 했다.)

5.5 초점 vs. 경동사

이제 목적어 전치와 내부 경동사 해석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68a)와 (69a)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내부 초점을 내부 경동사 앞에 위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내부 초점과 외부 초점은 '明天(내일)', '昨天(어제)' 등 시간 부사어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구분된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외부 초점에서도 (68b)와 (69b)처럼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18) [역주]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 (67)에 함축적인 외부/내부 경동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면 (67')과 같다. 이 때 '自己'는 재귀부사가 아니라 재귀대명사로서 내부 피영향자로 기능한다.

- (67') a. 那把刀 [切得]+CAUSE 我切掉了自己一根手指頭。 [외부 경동사 > 내부 피영향자]
 ((직역) 그 칼은 잘라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서 손가락 하나를 잘려나가게 했다.)
- b. 阿Q [切]+USE 那把刀切掉了自己一根手指頭。 [내부 경동사 > 내부 피영향자]
 ((직역) 阿Q는 그 칼로 잘라서 그 자신에게서 손가락 하나를 잘려나가게 했다.)

- 같지만, 이집트에는 그다지 가게 할 것 같지 않다.)
 b. ?這本書希臘〔讀得〕+CAUSE 我明年好像去, 埃及就不怎麼像去了。
 [?외부 초점 > 외부 경동사]
 ([직역]?이 책은 그리스에는 읽어서 나로 하여금 내년에 가게 할 것
 같지만, 이집트에는 그다지 가게 할 것 같지 않다.)

비록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71b)에서 목적어를 'CAUSE'와 시간부사어 보다 더 왼쪽 위치한 외부 초점 위치로도 인상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5.6 부사어 vs. 피영향자

마지막으로, 부사어와 피영향자를 함께 묶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72)는 실현문/현실문(realis sentence)으로, 오직 내부 '怎麼(어떻게)'가 도구로 해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72) 阿Q怎麼跑了?
 a. 阿Q는 왜 도망갔나요? [외부 '怎麼': 원인]
 b. #阿Q는 어떻게 도망갔나요? [#내부 '怎麼': 도구]

이러한 제약은 기동상(inchoative aspect)의 시제 연결 효과(tense-anchoring effect)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내부 '怎麼(어떻게)'가 논리형식(LF)에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한다.²¹⁾ 이에 비하여, 외부 의문부사어는 늘 시제구(Tense Phrase: TP)를 그 작용역 안에 포함하므로, (72a)의 원인 해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 구문에 외부 피영향자를 추가해 본다면, 외부 '怎麼

21) [역주] Tsai(2008)에서는 함축적인 사건논항을 시제에 연결함으로써 문장의 완결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중국어의 기동상 '了₂'는 상층 상투사(high AspectP) 위치에서 일종의 운용자로서 사건논항을 변항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기동상과 '怎麼'와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논리형식에서 '怎麼'가 의문운용자 위치로 이동할 때 기동상이 일종의 간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Tsai, W.-T. Dylan. 2008. "Tense Anchoring in Chinese". *Lingua* 118: 675-686.

(왜)'는 (73a)처럼 피영향주를 성분통어(c-command)할 수는 있지만, (73b)처럼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 (73) a. 阿Q怎麼給我跑了? [외부 '怎麼' > 외부 피영향자]
 (阿Q는 왜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도망갔나요?)
 b. *阿Q給我怎麼跑了? [*외부 피영향자 > 외부 '怎麼']

더 나아가, 내부 피영향자는 외부 '怎麼(왜)'를 작용역으로 취할 방법이 없다. 이는 관련된 피영향주가 (74)처럼 유사 이중목적어 구문에 깊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74) 阿Q怎麼喝了我三瓶酒? [외부 '怎麼' > 내부 피영향자]
 (阿Q는 왜 나에게서 술 세 병을 마셨나요?)

다음으로, 내부 의문부사어와 중국어 피영향자와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75)는 미실현문/비현실구문(irrealis construction)으로, 내부 '怎麼(어떻게)'는 오직 의지조동사(volitional modal) '想(~하고 싶다)'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75a,b)에 예시된 대조는 원인을 나타내는 외부 '怎麼(왜)'는 이 구문에서 차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75) 阿Q想怎麼去臺北?
 a. #阿Q는 왜 타이베이에 가고 싶어 하나요? [*외부 '怎麼': 원인]
 b. 阿Q는 타이베이에 어떻게 가고 싶어 하나요? [내부 '怎麼': 도구]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76)과 같이 다시 한 번 외부 피영향자를 추가해 보기로 하자. 이 때 피영향주 '我(나)'는 의지조동사(와 추이율(transitivity)에 따라 내부 '怎麼(어떻게)')를 작용역에 포함해야 한다.²²⁾

22) [역주] 추이율이란 논리학의 삼단논법에서 전제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규칙으로, A→B이고 B→C이면 A→C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76)은 외부 피영향자 > 의지조동사 > 내부 '怎麼(어떻게)'의 어순을 보이므로, 내부 피영향자는 내부 '怎麼(어떻게)'에 선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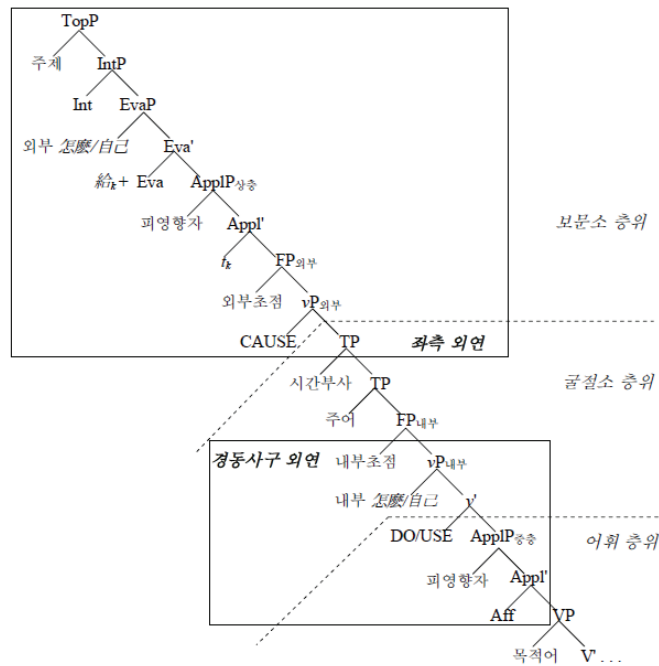
- (76) 阿Q居然給我怎麼去臺北? [외부 피영향자 > 내부 '怎麼']
 (阿Q는 뜻밖에 나에게 유리/불리하게도 어떻게 타이베이에 가고 싶은가요?)

이에 비하여, 만약 (77)처럼 외부 피영향자를 상응하는 내부 피영향자로 대체한다면, 내부 '怎麼(어떻게)'는 경동사구 외연에 위치하므로 자연스럽게 간접목적어 위치의 피영향주보다 앞에 출현하게 된다.

- (77) 阿Q想怎麼喝我三瓶酒? [내부 '怎麼' > 내부 피영향자]
 (阿Q는 어떻게 나에게서 술 세 병을 마시고 싶은가요?)

이상에서 중국어 내부성분과 외부성분들 사이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빠짐없이 점검한 결과, 두 외연에서 이들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다음 (78)의 도식과 같이 사상해낼 수 있다.

(78) 현대중국어 내부/외부 성분들의 지형도



6. 맺음말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고에서는 부사어, 부가논항, 경동사, 목적어 전치 현상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증거를 추출함으로써 경동사구 외연의 존재를 실증하고, 경동사구 외연 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해석 가능성의 범위에 있어서 경동사구 외연은 인과성/사동성이 아니라 (원형적) 동반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좌측 외연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지형학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통사-의미적 사상관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23)

- Cinque, Guglielmo. 1990. *Types of A' Dependencies*. Cambridge Mass: MIT Press.
- Cuervo, M. 2003. "Datives at Large". Ph.D. diss., MIT.
- Diesing, Molly. 1992. *Indefinites*. Cambridge, MA: MIT Press.
- Jaeggli, Osvaldo. 1982. *Topics in Romance Syntax*. Dordrecht: Foris.
- Kikushima, Kazunori. 2013. "On the Architecture of Modals and Applicatives in Japanese: A Cartographic Analysis." Ph.D. dis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aiwan.
- Michelioudakis, Dimitris and Ioanna Sitaridou. 2008. "The Ethic Dative in Modern Greek and Romance". Paper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Meeting of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23) [역주] 지면 제약을 고려하여, 후반부 번역 내용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을 목록에 열거하였다. 원문의 전체 참고문헌은 전반부 번역문이 수록된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4집을 참조.

- Aristotelian University of Thessaloniki, May 2008.
- Perlmutter, David. 1971.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s in Syntax*.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Tsai, W.-T. Dylan. 2001. "On Subject Specificity and Theory of Syntax-Semantics Interfac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0(2): 129-168.
- Tsai, W.-T. Dylan. 2008b. "Object Specificity in Chinese: A View from the *v*P Periphery". *The Linguistic Review* 25(3-4): 479-502.
- Tsai, W.-T. Dylan. 2012. "High Applicatives Are Not High Enough: A Cartographic Solution". Paper presented in the 14th Chin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emporary Linguistics, Xi'an Foreign Language University, Xi'an, May 2012.

A Tale of Two Peripheries:
Evidence from Chines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Object Fronting (2)

Wei-Tien Dylan Tsai

Translated by Jeong-Hyun Lim

Abstract

This paper is a translation of the latter half part of Tsai(2015)'s influential work, which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architecture of Chinese grammar, particularly in mapping out the topography of Chinese functional elements. Tsai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Chinese functional elements is concentrated in two specific areas (i.e., the *vP* periphery and the left periphery), which in turn are associated with comitativity and causality respectively through the syntax- semantics interface. Both language-internal and cross-linguistic evidence from *wh*-/reflexiv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object fronting lend strong support to the existence of the inner-outer dichotomy. These findings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yntax- semantics mapping under the cartographic approach.

Key words: *vP* periphery, left periphery, inner-outer dichotomy,
wh-/reflexiv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focus

투고일: 2019. 03. 28. / 심사일: 2019. 03. 29. ~ 04. 14. / 게재확정일: 2019. 04. 19
